

군민 보건향상 · 건강증진 협력 안전한 학교 급식 위한 합동점검

무주군, 대전대 대전한방병원과 양·한방 진료협약 체결

무주군은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양·한방 협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무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영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원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무주군은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양·한방 협진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양질의 의료기술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상호 협력적 관계를 통해 무주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양·한방 전문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과의 협약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 질환 및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 시점이어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어르신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으로 2017년과 비교했을 때 1.5배 증가했으며, 만성질환 환자 수도 2,007만 명으로 2020년 대비 6.1%, 진료비는 8.1%나 증가했다"며 "무주군은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많으니 장기 입원과 재활을 요하는 경우도 많고 한방진료를 선호하시는 면도 있어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과의 협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원장은 "일상적인 검진과 치료는 물론, 장기적인 입원·재활이 필요할 경우에도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편안하게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은 교수가 직접 책임 진료하는 우리나라 대표 한방병원으로 한방내과를 비롯한 침구과와 재활의학과, 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양·한방 20개 과목을 개설해 진료 중이다. 149병상 규모로 한의사 52명과 의사 2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X-Ray촬영장비와 CT, 갑상선초음파, 체외충격파, 온열치료기 등 의료장비를 갖추고서 야간진료실도 운영(365일 24시간)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안심식당 지정업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44개소 대상 실시

진안군은 관내 안심식당 지정업소 44개소를 대상으로 24~26일 3일간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안심식당은 △음식 떨어 먹기(개인

접시, 국자 등 떨어 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 장치(용품) 비치로 4대 실천과제를 실천하는 업소이다.

현재 군에서는 총 54개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식문화 개선을 위한 불품을 지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현장점검은 상반기에 기 지정업소 44개소, 하반기에 신규지정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로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으로 연내에 신청하면 군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소방서,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대상 표본점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위험물로부터 더욱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제출 대상 표본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지정수량 이상의 물품을 말하며 주택용 난방시설 용도의 저장소 또는 취급소는 제외한다.

또한 지난 2020년 10월에 신설된 '위

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법령에 정한 제조소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정기점검 제출의 무 관련 위반사항 발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나아가 위험물로부터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기 위해 정기점검 제출 대상 중 표본을 선정해 △위험물 저장·취급 준수 여부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실시 및 보존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정기점검 제출의무 안내 등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

안동춘 방호구조과장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화재가 발생 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고 큰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련 지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해 더욱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 교육청 · 농관원, 학교급식 공급업체 현장 방문

진안군은 지난 22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가공업체 중 4개소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식중독 사전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유지를 위해 진안군과 교육지원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담당 공무원과 관내 학교 영양교사 및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영양장 및 종사자의 위생 상태 적정성 △원재료의 보존과 작업된 식품 보관·관리 △유통기한 등 제품 표시사항 표기 및 준수 여부 △각종 인허가·인증 유효기간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반은 진안군 학교급식 식

재료로 유기농 쌀을 전면 공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관내 유기농 쌀 공급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수급계약 조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농협김치(부귀면), 신비담, 순애할매농산 등을 방문해 지역 가공품의 지역 식재료 사용비중 확대를 주문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은 "학교급식 납품 가공업체 등에게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산 먹거리 비중을 높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학교급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이종훈 부군수를 주제로 지난 22일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상황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회의 개최

장수군, 이종훈 부군수 주제 점검상황 · 조치계획 등 집중 논의

장수군은 이종훈 부군수를 주제로 지난 22일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추진상황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무원·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이 대상 시설을 합동 점검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군의 안전점검 대상은 시설물 94개소이며 내실 있는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안전점검 실효성 강화, 최첨단 점검 장비를 이용한 점검의 신뢰성 확보, 집중안전점검관리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 후속

조치 이력관리 등을 강조하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안전점검상황, 조치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군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의 기조에 맞춰 '주민자율안전점검' 문화 확산을 위해 자율점검표 총 1,000부를 제작·배부해 자율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종훈 부군수는 "생활 속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주민 스스로 내 집과 시설물에 대한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율점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제1기 로컬JOB센터 일자리 서포터즈 활동 시작

무주군은 제1기 로컬JOB센터 일자리 서포터즈가 23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주민 8명으로 구성이 됐으며 올해 12월까지 무주군 관내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일하게 된다.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개인 SNS 등을 통해 지역 내 구인 구직자 발굴 및 관련 정보 공유, 로컬JOB센터를 비롯한 구인·구직 홍보를 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 매칭에도 나서게 된다.

또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관련 의견 및 아이디어도 교환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진안군보건소(소장 송미경)은 23일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무설치 대상인 보건요리기관, 체육시설 관리책임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관공서 관리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방법 등을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윤재철 교수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상황은 발생 후 5분 이내에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시작돼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며, 5분 이상 경과하면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누구나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생들은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1인 1매킹을 활용해 심폐소생술(CPR) 실습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갖고, 교육 후에는 수료증을 수여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